

'13일째 막힌 물류' 광주·전남 산업계 파장

시멘트 출하량 74.8% 회복 불구 레미콘 생산 차질

철근·콘크리트 수급난에 건설현장 곳곳 골조 공정 중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가량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멘트 제조시설 5곳은 전날 시멘트 1만9598t을 생산·출하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대상 업무개시명령으로 일부 원자재 운송이 재개하면서 파업 이전 일 출하량(2만 6300t)의 74.8%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업체 112곳 중 34곳은 여전히 납품을 멈췄다. 나머지 78곳도 시설이 제한 가동되면서 출

하량이 평시를 밑돌고 있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없는 광주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업체 7곳 모두 출하량이 없다. 비축 재고량마저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레미콘 수급난이 여전하면서 지역 건설 현장도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골조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광주에선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는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 토사 굴착·운반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고 있다. 무등야구장 개축 공사장,

광주전 환경정비공사 등도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민간 건설 현장 10여 곳도 철근 골조·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일시 중단돼 자재가 확보된 공정부부터 우선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일 6곳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남에서도 건설 시공 현장 195곳 중 18곳은 레미콘·철근 등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항만 물류 역시 일부 긴급 물량 반출·입에다 좀처럼 통용이 트이지 않고 있다.

지역 수출입 거점인 광양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25TEU(2피트 규격 컨테이너 25대분)에 불과하다.

항만에서 반출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울(장치울)은

67.7%까지 높아졌다. 평시 61.4%에 비하면 상승한 것이다.

광양항에는 국도교통부·한국도로공사·군용차 등 긴급 수송차량 10대가 긴급 물량을 반출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화물연대 측과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출입구를 임시 개방기로 해 긴급 물량 820여 대를 반출했으나 장차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만일에 대비해 3만6000TEU 분의 임시 장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포항항의 장차율 역시 6.2%로 평시 수준(5%보다) 다소 높다. 임시 장차장(3만 8000TEU)을 추가 확보해 냈다.

철강 육상 출하는 전면 중단됐다. 다만 선박·철도를 이용한 긴급 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조기 출하, 적체 공간 사전 확보를 통해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

/김도기 기자

광주체육회장 후보들 공약 "지지 호소"

박찬모 "국제스포츠센터 건립" vs 전갑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광주시체육회장 도전장 기호 1번 박찬모·기호 2번 전갑수 후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기호 1번 박찬모·기호 2번 전갑수 후보가 "체육계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광주체육회는 '건강'과 '범죄 혐의' 등의 이유로 2명의 전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오명을 씻어야 하는 책임감도 주어져다.

이들은 오는 15일 체육인들로부터 구성된 429명의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기 위해 6일 부터 14일까지 공약 알리기에 나선다.

기호 1번 박 후보는 이번 광주체육회장 선거에 '체육회 위상 회복·세계적 규모 스포츠센터 건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체육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야 할 수장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민선 1·2기가 성과 없이 종료돼 광주 체육의 위상이 곤두박질 쳤다"며 "민선 3기는 유명무실한 체육회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과 도덕성, 참신성,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훌륭한 리더를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광주종합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을 건립하고 월드컵경기장과 영주체육관 주변에 스포츠 시설을 집약 시키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전과 영산강권 수변 공간에 각종 체육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체육인과 기량을 겨룰 수 있는 차별화된 광주체육대추전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모 후보는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학교 공학석·박사를 취득 한 뒤 광주육상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와 맞서는 기호 2번 전갑수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체육, 강한 추진력을 통한 광주체육 증흥기를 이루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전문체육인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 전문이사의 선출을 개선했고 실업(직장)팀 확대와 지역 출신 우선 배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수선수·지도자 영입을 위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체전·소년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 인상, 동계체전 종목 육성 지원, 2027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후보는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검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삼일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기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평행선

3+3 협의체 기동해 추가 논의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한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이 시간이 아직 정리가 안돼 오늘 오후 중이라도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원내대표들이 그동안 논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직 접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 첫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동안 '2+2'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해 서로 보고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접점을 좁혀가기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5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청년원가주택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북한군=적"...6년만에 부활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명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추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대통령실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 관련 입장발표' 장 등을 비롯한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장경태 최고위원 명예훼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찬모(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타도위원회 공동위원

野, 장경태 고발에 "김건희 비판 원천 봉쇄하려 하나"

"자료·근거 공개하고 해명하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장경태 최고위원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한 데 대해 "비판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가"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을 내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언급하고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니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다.

또 "한사코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야당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

리겠다는 건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김 여사가 비공개 개별 일정을 진행했다면서 "장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빈곤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비판과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또 "비판과 의혹을 대신 제기한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고발까지 한단 말인가"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히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을 대리해 질문한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불

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태도가 좀스럽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건가"라며 "자유는 어디 있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졌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가 세상에 존재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 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자료를 공개하면 김 여사 감보디아 사진 관련 모든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엔 제출할 수 있는데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냐"라며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 취지로 결재해지 하라. 이게 정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SI정보 속 '월북' 표현만 진위 의심하나"

서훈 측 영장심사 때 항변... "피격·소각도 같은 첩보에 나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첩보에 담긴 '피격'이나 '소각'이라는 정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이 실령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한 의사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군 첩보에 담겼다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두고 서 전 실장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 공방이 오갔다.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 관련 국방부 SI(특수정보) 첩보에는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사건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런 첩보를 토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당시 표면적으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표명한 것'이라 진위가 의심된다고 결론냈는데, 검찰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것도 SI 첩보로 확인한 정보인데,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월북 의사'만 선별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월선 작업'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이 아닌 표류였다면 '월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발적 월북보다는 실족 후 표류에 무게를 둔다.

/뉴스

호매민평

이태원

허어

오대한민국!!

문피타도

좌파인본척결

온승파입법

인본박승정의

국힘

독주

태원

VOA "북 동창리 로켓발사대 패널 열려...더 큰 로켓 발사 가능성"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로켓 발사대(켄트리 타워)를 가리고 있던 개폐형 패널이 열리고 타워 꼭대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새 크레인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1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발사대의 남쪽 구조물 아래쪽 부분에 대형 하얀색 물체가 매달린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 물체가 바로 옆 발사대 구조물의 개폐형 패널로, 큰 각도로 열린 상태이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해체돼 남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대는 남쪽과 북쪽 구조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로켓 발사는 북쪽 구조물에서 이뤄진다. 평소 북쪽 구조물은 하얀색 개폐형 패널로 가려져 있지만 발사가 임박한 시점엔 이 패널을 넓은 각도로 개방한다.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패널이 열려 있는 데 주목하며 "안쪽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큰 로켓과 새로운 추진체를 쏘아 올리려는 작업"이라며 "발사대에 남아있는 장비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과거의) 은하 로켓용인 만큼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슈펠러 제임스스미트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발사 장치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자재를 발사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며 "켄트리 타워 안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VOA는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는 크레인이 발사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